

GS칼텍스 정보유출 배후 “집단소송”

집단소송 노리고 1100만명 정보 빼내 ... 3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배후는 집단소송 수임을 노린 법무법인 사무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0월2일 GS칼텍스 고객 11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GS칼텍스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GS넥스태이션 직원 정모씨와 정씨 친구 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S법무법인 사무장 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정씨는 7월 8-20일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강씨는 8월28일 정씨 등이 “자료를 제공할테니 집단소송에 활용하고 일정 금액을 나눠달라”고 하자 “개인정보만 있다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돼 사회 이슈가 돼야 가능하다. 이슈화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실제 강씨가 말한 대로 9월2일 강남에서 언론사 기자 등을 만나 자신들이 빼돌린 GS칼텍스 고객 정보가 든 CD와 DVD 1장씩을 건넨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02>